

- 혁신기술 활용 고객·직원 PainPoint 개선, 소통과 혁신 기업문화 정착 - 우리은행 ‘테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으로 디지털 신사업 발굴

- 신사업 발굴을 위해 IT 및 현업 전문가·전문 조력자 함께 참여해 애로사항 즉시 해소
- 고객·직원 ‘PainPoint’ 발굴·해소로 일하고 싶게 만드는 혁신의 기업문화 정착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신사업 발굴과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테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Tech Innovation Program, TIP)’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테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고객과 직원들의 페인포인트(PainPoint, 고충점)를 발굴해 디지털 관련 프로젝트와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워크숍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술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IT분야를 지원하는 우리에프아이에스 직원과 은행 현업부서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전문 조력자)를 양성해 원활한 논의와 소통을 지원한다.

워크숍은 신사업 및 업무효율화 아이디어를 가진 4~6명으로 구성된 현업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기술 특강 ▲아이디어 공유 및 솔루션 마련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 등을 수행한다. 특히 워크숍 마지막 날은 해당 사업 추진 관련 부서장이 현장을 방문, 논의 결과를 직접 공유해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상시화해 자유로운 토론과 혁신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이 실시되는 여의도 소재 ‘TIP cafe’는 직원들이 사무실과 영업현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조성했으며 특히 ‘메타버스 체험룸’ 등 테크 체험공간은 참여자 모두가 혁신기술이나 출시 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를 현업의 비즈니스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기술을 쉽게 활용,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신속하게 사업추진까지 이뤄지는 상시 혁신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테크 기반 소통의 장을 더욱 활성화해 업계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문의는 혁신기술사업부 【차장 최이환 ☎02_2002_4355】로 하시기 바랍니다.